

청년층 일자리 창출문제에서 Co-creation적 해결방안에 관한 연구: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Youth Job Creation Problem Solving with
a Co-creation Approach: Focusing on the Busan City)

홍순구¹⁾, 이현미²⁾, 한세억³⁾, 김종원^{4)*}

(Soon-Goo Hong, Hyun-Mi Lee, Se-Eok Han, and Jong-Weon Kim)

요약 2000년 이후 우리나라 경제 성장세는 지속적으로 둔화되고 있으며, 저성장 기조에 따른 고용창출 역량도 같이 저하되고 있다. 이러한 성장정체와 고용창출 역량의 부족으로 인해 청년층 일자리 문제는 더욱 악화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청년층 일자리 창출을 위해 co-creation적 문제해결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청년층 일자리 창출문제와 관련된 최근 1년간의 신문기사 자료를 수집하여 근거이론으로 분석하여 청년층 일자리 창출에 관한 패러다임 모형을 도출하였다. 이를 토대로 프로세스과정 요소, IT기술의 활용 및 지역 특성, 문화 등의 환경적 요소, 법적·행정 및 제도적 요소의 3가지 요소로 구성된 청년층 일자리 창출 개념모형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학문적으로 청년층 일자리 창출문제를 근거이론으로 분석함으로써 이 분야의 질적 연구의 확대에 기여하였고, 실무적으로는 청년층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핵심주제어 : Co-creation, 청년층 일자리 창출 문제, 근거이론, 개념모형

Abstract The growth of Korean economy has continuously declined since 2000, which resulted in the reduction of employment creation opportunity. Furthermore, these circumstances are aggravating the youth job creation. This study investigates the co-creation approach for solving the youth job creation problem. By using the grounded theory on recent newspapers for a year, the study proposes a paradigm model for the youth job creation. Based upon this result, the study creates the conceptual model for the youth job creation, which includes three factors such as process, environment, and institution. This study will contribute not only to the extension of qualitative study on the grounded theory in research, but also to the political implications for the youth job creation in practice.

Key Words : Co-creation, Youth Job Creation, Grounded Theory, Conceptual Model

* Corresponding Author : hskim@anu.ac.kr

† 이 논문은 2012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2S1A3A2033394).

‡ 이 논문은 2014년 동의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과제번호: 2014AA139)

Manuscript January 20, 2015 / Revised February 07, 2015 / Accepted February 09, 2015

1) 동아대학교 경영정보학과, 주저자
2) 동아대학교 전임연구원, 공동저자
3) 동아대학교 행정학과, 공동저자
4) 동의대학교 경영정보학과, 교신저자

1. 서 론

우리나라 산업계는 현재 글로벌 경기침체, 저성장, 저출산·고령화, 청년실업 등 사회·정치·경제의 모든 분야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2000년 이후 우리나라 경제 성장세는 지속적으로 둔화되고 있으며, 저성장기조에 따른 고용창출 역량도 같이 저하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일시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문제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심각성이 우려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고용유발효과가 낮은 제조업과 대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산업구조 속에서 국내 투자여건의 악화, 임금상승, 신 성장 동력의 부재 등 다양한 요인이 겹쳐지면서 고용 창출력이 크게 악화되고 있다 [1]. 이로 인해 청년층의 고용률은 OECD평균보다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고, 대졸이상의 고학력 실업자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청년층의 일자리와 관련된 문제는 청년층이 일자리를 가짐으로써 독립적인 경제생활을 시작할 수 있게 되고,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게 되는 등 자신과 가족의 생계 및 사회적 역할 수행에 있어서 기본적인 토대가 된다[2]. 이러한 요인이 충족되지 못하는 청년층은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하는 3포(杼) 세대로 불리다가하면 일자리, 소득, 집, 연애/결혼, 아이, 희망이 없을 것이라는 6무(無) 세대로 전락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청년층의 취업실패는 사회적 고립과 소외 등의 문제로 삶의 질 악화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취업에 실패한 경험이 상실감으로 이어져 장기적으로 국가와 지역의 경쟁력 악화 문제로 확대될 수 있다.

이러한 국가적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는 '창조경제'를 통한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로드맵을 구상하고 청년층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일자리를 늘이기 위해 사회적 일자리, 시간제 일자리, 해외취업 일자리 등의 양적성장을 위한 노력과 취업을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 창업 등의 지원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청년층의 일자리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으며, 수요는 넘치는데 질 좋은 공급은 없는 청년층 '일자리 절벽(job cliff)'에 몰리고 있다[3].

이러한 청년층의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 경영분야에서 대두되고 있는 Co-creation적 문제 해결방안을 찾고자 한다. Co-creation은 IT플랫폼을 기반으로 기업이 경영혁신을 위해 기업내외부의 모든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협력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것을 말한다[4,5]. 예를 들면, 네슬레(Nestle)는 복잡한 커피 공급망을 개선하기 위해 커피 재배지에 농민들이 커피를 잘 재배할 수 있도록 농업기술 및 각종 지원을 하여 농민의 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고, 이를 통해 네슬레는 원료의 안정적인 확보를 꾀할 수 있게 되었다. 이처럼 기업이 갑으로서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것이 아니라 공급업체인 농부와 함께 협력하여 보다 나은 경영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사회문제 해결에 적용하여 IT를 기반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와 협력을 통한 Co-creation적 해결방안을 적용하면 참여자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의견을 모으고 이해관계자들의 지혜를 빌려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수행에 있어 새로운 아이디어가 가진 위험성과 파급효과에 대한 불확실성을 극복할 수 있다. 또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및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게 되어 사회문제 해결을 넘어 궁극적으로 지역사회 경쟁력을 갖추고 발전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청년층 일자리 창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Co-creation적 해결방안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사회적 이슈를 가장 잘 나타내고 있는 최근 1년 동안의 신문기사를 근거이론으로 분석하여 청년층 일자리 창출문제 해결을 위한 패러다임 모형을 도출하였다. 근거이론은 체계적인 질적 연구방법으로서 수집된 자료로부터 이론적 체계, 과정, 실행, 상호작용 등을 설명하는 이론을 개발하는 연구방법론으로 청년층 일자리 창출문제와 관련된 사회적 현상을 연구하기에 적절한 방법론이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문헌연구로서 청년층 일자리 창출문제 현황 및 관련 선행연구 등에 대해서 알아보고, 3장에서는 청년층 일자리 창출 관련 신문기사를 수집하여 근거이론으로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4장에서는 청년층 일자리 창출 개념모델을 제시하고, 5장에서는 연구의 요약 및 공헌도, 한계점을 기술하였다.

2. 청년층 일자리 창출문제

2.1 Co-creation과 청년층 일자리 창출문제

Co-creation은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 참여자 모두가 새로운 공유가치(Shared Value)를 창출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6]. 즉 Co-creation은 인터넷, 스마트 기기, SNS 등 IT를 기반으로 시간과 공간에 관계없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유도할 수 있다[4].

최근 우리사회에서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가 바로 청년층 일자리와 관련된 문제이다. 청년층 일자리 창출문제는 청년들의 개인적인 문제와 함께 국가재정의 악화, 사회갈등, 저출산 등 다양한 사회·경제적 문제를 가져온다[7].

우리나라 청년층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명시된 대로 15~29세가 이에 해당된다. 통계청의 청년층 실업률¹⁾은 2010년 8%에서 2014년 12월 현재 7.9%로 그 차이가 별로 나지 않지만[8], 사회가 체감하는 청년층의 체감 실업률은 20%를 넘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또한 2015년의 고용증가 수치가 낮을 것으로 전망되며, 2월 대학졸업생이 배출되면 2015년도의 취업준비생은 100만 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청년층의 일자리 문제는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수준에 달할 것으로 나타났다[3].

이를 위해 정부에서는 ‘국민행복, 희망의 새 시대’를 만들기 위한 전략으로 정부 3.0을 통한 ‘고용률 70% 달성’이라는 국가목표를 세워 청년층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청년층의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정책은 크게 2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공공분야나 비영리분야에서 임시직, 인턴직 등의 직접적 일자리를 만드는 정책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보조금 지급, 직업 훈련 등의 간접적 정책이 있다. 두 번째는 정책 수단별로 구분하여 기업이 취업자를 늘리기 위한 보조금 지원 정책, 구직자가 취업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인프라 구축정책,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훈련 및 연수 지원 정책, 창업지원 정책 등이 있다[9]. 특히 정부 3.0에서는 창조경제를 통한 창의적 아이디어를 실제 사업화로 이어가는 창업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일자리 창출 관련 정책을 Table 1과 같이 5가지로 제시하고 있다.

이와 같이 청년층의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정부 단독으로 추진하기 보다는 관련된 모든

Table 1 Policy for the Young Generation by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구분	세부내용
취업정보	워크넷 운영 강소기업 직업진로상담
취업·진로 지원	청년 취업 아카데미 정부지원 일자리 사업
직업체험	청년 취업 인턴제(중소기업인턴제) 창업인턴제
해외취업	맞춤형 해외취업 연수 글로벌 청년취업(K-Move) 민간해외취업알선 해외취업 장려금
능력중심 채용문화	핵심 직무역량강화 스펙초월 멘토스쿨

(출처: 고용노동부, 검색일 2014.04.14)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 참여자 모두가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여 정책에 대한 효과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2.2 청년층 일자리 창출 관련 선행연구

Schmid G.[10]는 청년층의 실업 발생 원인을 경제 침체와 국제 경쟁력 훼손으로 인한 일자리 부족, 기존 일자리가 요구하는 숙련과 교육제도가 제공하는 숙련 간의 미스매치, 임금과 노동시장의 경직성, 보편적 복지국가 또는 차별로 인한 높은 비임금 비용 등을 제시하였다. 임진[11]은 최근 청년 고용 현황의 부진함을 밝히고 청년 고용이 부진한 이유를 노동공급측면에서 고학력화, 노동수요측면에서 양질의 일자리 부족 및 세대 간 일자리 경합, 노동시장구조측면에서 노동수급 미스매치를 들어 청년층 고용문제가 교육시장, 노동시장 등 광범위하게 걸쳐 있는 구조적 문제로 인식해야함을 지적하였다. 박홍철 외[12]는 청년층 고용에 있어서 수도권 지역과 주요 광역시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문제에 대해서 청년층 고용의 지역격차를 완화하고 지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고용위험 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며, 정부는 이를 통해 지역특성에 부합하는 고용정책의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선택과 집중의 전략을 수립해야함을 제시하였다. 송영남[13]은 임금, 일자리 안정성, 비전, 사회적 평판, 근무환경 등의 ‘좋은 일자리’의 특성을 제시하고 청년층 노동시장의 미스매치 완

1) 청년층(15~29세) 실업률: 만 15~29세 경제활동인구(취업자+실업자)에서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 청년층 실업률 = (만 15~29세 실업자 / 만 15~29세 경제활동인구) x 100

화를 위해서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 생활환경의 개선, 임금보상제 등의 정책 대안을 제시하였다. 이경선 외 [1]는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 ICT분야의 해외 일자리 창출 방안으로 해외수요처 기반 확대와 지속적인 수요창출의 선순환 구조 확립, 해외 취업자들을 위한 개방형 정보시스템 구축, 해외 수요처가 원하는 인재의 양성과 지속적인 지원체계 구축을 제시하였다.

3. 근거이론 분석

지역사회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 중 청년층의 일자리 창출문제에 대한 사회적 이슈화 정도 및 노력들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최근 1년 동안의 뉴스 기사 자료를 수집하여 근거이론으로 분석하였다.

3.1 연구절차 및 방법

청년층의 일자리 창출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근거이론 분석을 실시하였다. 최근의 청년층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실제적인 사회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네이버 뉴스 검색을 이용하였다. 네이버 뉴스에서 키워드 “청년층 일자리 창출문제”로 검색하였다. 검색옵션으로는 최신 기사 순으로 정렬하고, 기간은 최근 1년간(2013.12.01~2014.12.01)의 기사, 영역은 전체로 설정하였고, 유형은 동영상, 포토, 지면기사, 보도자료 등의 형태가 다른 동일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한 가지 유형의 지면기사를 선택하였다. 언론사는 네이버뉴스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뉴스를 선택하여 검색하였다.

“청년층 일자리 창출문제”에 대한 검색옵션에 따



Fig. 1 Data Collection Method

라 검색한 결과, 기사 수는 4,233건이며, 최근 1년간의 기사건수는 777건으로 조사되었고, 다양한 형태 중 지면기사 유형으로 검색되어진 기사는 총 97건으로 나타났다. 이 중 일자리 창출문제와 관련이 없는 8건의 기사를 제외하고 최종 분석에 사용된 신문기사는 총 89건이다.

이렇게 수집된 기사자료를 텍스트문서로 저장하였고, 이를 Nvivo 10.0 프로그램으로 <Fig. 2>와 같이 문장 및 단락을 선택하여 새로운 노드를 생성하였고, 생성된 노드를 통합하여 범주화하는 작업을 반복하는 근거이론으로 분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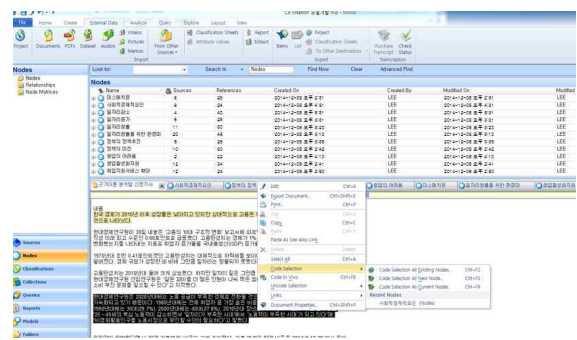


Fig. 2 Nvivo 10.0 Program

3.2 근거이론 분석과정 및 결과

근거이론의 분석은 개방코딩, 축코딩, 선택코딩의 3단계 과정을 거친다. 이러한 코딩과정은 정보나 자료를 분류하고 분석하는 과정으로 정의된다[14].

본 연구에서는 97건의 신문기사 중 동일한 내용의 기사와 청년층 일자리 창출문제와 관련이 없는 8건을 제외한 89건의 기사를 문장/단락 분석을 활용하여 3단계 코딩을 실시하였다. 그 첫 번째 단계로 연구자가 문장에 대한 개방코딩을 실시한 후 그 결과에 대해서 3명의 다른 연구자가 도출된 개념과 범주를 서로 비교하여 범주화에 대한 수정작업을 실시하였으며, 이러한 수정작업을 반복하여 개방코딩의 연장선상에서 축코딩을 실시하였다. 축코딩은 중심현상인 청년층 일자리 창출을 축으로 하여 인과적 조건, 맥락적 조건, 중재적 조건, 중심현상, 작용/상호작용전략, 결과를 분류하고 이를 다시 조합하여 페러다임 모형을 도출하였다. 근거이론의 3단계 분석의 전체 과정에서 3명의 연구자가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의견을 나누는 수정작업을 실시하였다.

1) 인과적 조건

청년층 일자리 창출에 대한 원인이나 사건이 일어나게 하는 조건을 의미하는 인과적 조건으로는 최근 청년층의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사회적, 경제적 문제의 증가가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많은 청년층은 취업을 위한 준비기간이 길어지고 고스펙의 청년 백수가 증가하면서 생활고에 시달리며, 이로 인해 결혼과 출산을 저해하는 등 또 다른 사회문제로 확산되고 있었다. 또한 경제적 요인으로 장기적인 글로벌 경기침체로 인해 고용 없는 성장이 계속되어 일자리는 더욱 부족할 실정으로 나타났다.

Table 2 Category, Subcategory, and Concept of Causal Conditions

상위 범주	하위 범주	개념
사회적 경제적 요인	사회적 요인	-높은 실업률로 취업 준비생 100만 명 시대 -고스펙 청년백수, 생활고 등 청년층 니트(NEET)족 증가 -청년층 일자리 문제는 학업, 병역 등 사회구조적 문제와 얽혀 있음
	경제적 요인	-경기침체의 장기화로 고용없는 성장 -추격형 경제성장 모델 고착화 -기술수준 약화(10년간 정체 세계 최고 대비 75% 수준)

2) 맥락적 조건

맥락적 조건은 중심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현상이나 상황을 나타내는 것으로 청년층 일자리 창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인과적 조건의 사회경제적 문제 증가에 따라 정부에서 청년층 일자리 창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계획하고 추진하는 것이 요인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부 3.0에서 창조경제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계획하고 관련 정책추진으로 청년층 일자리 창출이 이루어지는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층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부의 정책 및 법·제도 정비를 추진하기 위한 계획을 설정하고 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전담조직을 신설하는 등이 일자리 창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중심현상

본 연구의 중심현상은 청년층 일자리 창출이다. 청년층 일자리는 청년층이 원하는 ‘좋은 일자리’가 있는가 하면 정책추진에 대한 성과의 결과물로 나타나

Table 3 Category, Subcategory, and Concept of Context Conditions

상위 범주	하위 범주	개념
정부의 정책 계획 및 추진	정부 의 정책 계획 및 추진	-“첫째도 일자리, 둘째도 일자리, 셋째도 일자리” 일자리 창출에 대한 강한 집념과 목표설정 -중소기업에 활력을 불어넣는 시책 우선 추진 -독일 슈투트가르트 모형을 응용한 광주형 일자리 창출 구축 추진 -미래 신 성장 동력산업으로 추진 계획 -정부 3.0 창조경제의 목표로 ‘2017년 고용률 70%’ 달성 목표 -‘양질의 일자리 20만개 창출’ 공약 이행 계획 -일자리 창출팀 전담조직 신설 -시장 직속의 좋은 기업 유치위원회 발족 -노·사·민·정 각계 대표, 고용노동부와 ‘일자리 창출 업무협약’체결 추진

는 ‘나쁜 일자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좋은 일자리는 금융, 관광, 마이스(MICE), 과학, 공기업, 대기업 중심의 안정적이고 비합리적인 차별이 부재한 일자리로써 청년층이 선호하고 있다. 나쁜 일자리는 불안정한 비정규직, 근로환경이 열악한 계약직 등의 형태로 청년층이 1년 이하의 기간 동안 시작할 수 있는 일자리로 나타났다.

Table 4 Category, Subcategory, and Concept of Central Phenomena

상위 범주	하위 범주	개념
일자리 창출	좋은 일자리 창출	-금융, 관광, 마이스, 과학, 산업 기술 등 은행권과 공기업, 대기업 중심의 일자리 -근로자 상황에 맞는 근무 형태를 제공하는 일자리 -비합리적 차별이 없는 일자리 -공공일자리와 민간일자리 등 22만8000여 개 신설 -취업시장에서 전문직의 비중(19.4%)을 스웨덴 수준(41.3%)으로 끌어올리면 540만 명의 전문직 일자리 -사회적 일자리 창출 -관광 분야를 포함한 고부가가치 유망 서비스업 -소프트웨어와 IT 서비스 분야에서 새로운 일자리
	나쁜 일자리 창출	-불안정한 비정규직 일자리 -근로환경이 열악한 계약직 일자리 -저임금의 시간제 근로 형태의 일자리

4) 중재적 조건

중재적 조건은 작용/상호작용전략에 영향을 미치는 조건들로 정책의 미진함, 창업의 어려움, 취업의 어려움의 3가지 요인으로 나타났다. 정책문제로 보여주기 식의 정책추진, 기업이 원하는 직업교육의 부실, 학벌주의 및 스펙주의 만연 등의 정책 및 제도적 문제와 교육 및 사회문화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창업의 어려움으로 아이디어에 대한 사업화의 어려움, 창업 자금을 대한 어려움 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구직자와 구인자 간의 눈높이 차이로 인한 미스매치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5 Category, Subcategory, and Concept of Intervening Conditions

상위 범주	하위 범주	개념
정책의 미진	정책 및 제도의 문제	-청년층 일자리 창출 정책의 사각지대(고졸 중심 정책만 있음, 인문계 졸업자, 졸업생 등은 설자리 없음) -매년 크게 달라지는 것 없는 보여주기 식 정책 -고용정책의 낙제점(1조 22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쏟아 부었지만 양적 성장에 치중) -장밋빛 공약만 대거 등장했지만 실현가능성 없음 -지역 맞춤형 정책 추진의 미비 -기존 대책은 기업에 대한 세제 및 금융 지원 강화에만 초점 -청년인턴제의 문제점(오히려 청년들의 정규직 채용을 막고 있음)
	교육 및 문화의 문제	-대학과 일터를 연계한 직업교육이 부족하거나 부실 -학벌주의 및 스펙주의 만연 -산업에서 필요로 하는 요구사항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는 교육
창업의 어려움	사업화의 어려움	-연구개발(R&D) 성과가 사업화로 이어지는 것은 극히 일부분
	자금의 어려움	-평균창업비용은 7,257만원으로, 현실적으로 창업에 들어가는 자본금을 마련하기에 역부족
미스매치 문제	구직의 문제	-생산 분야로 취업하기보다는 시간이 걸려도 대기업, 공기업, 공공기관만 바라봄 -청년층이 원하는 좋은 일자리는 채용규모가 한정적임 -노후산업단지 및 뿌리산업, 제조업에서는 근로환경이 너무 열악함
	구인의 문제	-원하는 인재를 찾기 힘들(제조업, 중소기업 매년 인력난) -양질의 인력을 확보하지 못한 기업의 경쟁력이 점점 떨어지는 악순환 -중소기업의 고급인력 5년내 이직률 65%에 달함

5) 작용/상호작용전략

근거이론에서 작용/상호작용전략이란 중심현상에 대처하기 위한 의도적이고 구체적인 실제 행동을 의미한다. 본 연구결과에서 나타난 작용/상호작용전략으로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 지원, 산업단지 구축확대, 제조업, 중소기업 지원확대 등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환경적 지원이 필요하며,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창업활성화 지원, 취업을 위한 지원서비스 확대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6 Category, Subcategory, and Concept of Actions/Interactions

상위 범주	하위 범주	개념
청년층 일자리 창출을 위한 환경 마련	일자리 창출 정책 지원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격차 완화 -시간 선택제 전환 혜택요건 완화(노동시장의 고용형태 다양화 지원) -전일제 일자리를 시간선택제 등 근로조건 개선 기업에 전환지원금 및 사회보험료 등을 지원 -광역시·도 단위에 청년 일자리 문제를 전담하는 '청년허브(청년 종합지원 센터)' 건립
	산업단지 구축	-국내외 전문 기업유치 및 산업단지 조성 -지식산업센터 건립 -벤처산업단지 조성(3조9000억원을 투입해 벤처 생태계를 조성)
	제조업 및 중소기업 지원 확대	-중견기업을 일류 글로벌 기업으로 키우는 지원 -제조업에 정규직 전환지원금, 파견근로허용 등의 재정 및 경영지원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경영 및 자금 지원 -청년층 중소기업 취업 유도 지원 확대 -중소기업이 해외건설·플랜트 등을 수출하기 위한 맞춤형 금융지원
	교육의 혁신	-창의적 인재 육성 -실용학문 중심과 인성교육으로의 교육 혁신 -일과 학습 병행시스템을 교육 개혁의 전면에 내세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문화 조성	-학벌주의 타파 -규제개혁 -창의성을 중시하는 문화 확산 -뿌리산업, 제조업, 중소기업에 근로의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 및 환경 조성 -ICT로 유연한 근무환경 조성
	청년층 창업	-창업교육 프로그램의 참여 기회 확대 -창업지원 프로그램 확대(청년창업 인큐베이팅 등)

활성화 지원	강화	-창의성의 가치와 융합 마인드 관련 행사 개최 -청년들의 해외 연수·인턴·펠로우쉽 기회 확대
	창업 자금 지원	-사회적 기업 창업지원 기금 -창업 후의 경영자금 지원 확대 -크라우드 펀딩 도입법 국회통과 -우수 아이디어의 사업화를 위해 유망 기업을 선정 창업자금 확보 지원
	창업 관련 정책 지원	-실패기업인 재도전 지원센터 설치 -창업보육센터, 창조경제 혁신센터 설치 확대 -지식문화서비스 산업의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정부 투자 촉구 -창조경제를 통한 '창업은 대박'을 위한 지원확대
청년층 취업 지원 서비스 확대	청년층 취업 지원 서비스	-맞춤형 일대일 상담 등의 취업정보제공 확대 -취업 성공 패키지 프로그램 실시 -선취업-후진학(경력개발) 제도 도입 -취업정보은행 활성화 -공공기관 지역인재 고용의무제 실시 -맞춤형 고용박람회
	청년층 취업 교육 강화	-직업 진로교육 및 직업 훈련 역량 강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R&D 인재 양성 및 활용 강화 -비전문 분야와 지식·경험 교류 및 견문을 넓힐 수 있는 교육 -첨단 기술과 인문학이 버무려진 교육 -독일이나 스위스식 도제훈련을 도입한 한국형 직업학교 -산업단지 인근에 '삼성반' '현대차반' 같은 기업 맞춤형 반 운영
	미스매치 해결 지원	-중소기업의 미래비전을 보여줌 -유망 중소기업, 강소기업에 대한 정보 제공 -수요와 공급을 연결해주는 '고용 알선' 서비스 -중소기업 취업자에게 근로소득세를 5년간 면제 및 재산형성을 위한 청년희망통장제도 지원

6) 결과

작용/상호작용전략에 따라 나타나는 결과로 좋은 일자리가 증가함으로써 시민의 행복이 증가하고 경제 성장 및 성장잠재력을 회복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며, 나쁜 일자리의 증가는 비정규직의 대량양상으로 저임금 근로자의 비중이 늘어나 청년층의 희생이 나타나고 청년고용사정은 최악의 상태로 이어질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자리가 감소함으로써 청년층의 불행은 나라의 손실로 이어지고 우리 경제의

Table 7 Category, Subcategory, and Concept of Consequences

상위 범주	하위 범주	개념
일자리 증가	좋은 일자리 증가	-좋은 일자리 증가는 시민의 행복 증가 -안정된 직장을 가진 청년층의 결혼과 출산율 증가 -청년층 역외 유출 방지, 인구감소에서 증가로 전환 -좋은 일자리 증가는 지방세수를 증가시켜 재정 안정화 -한국 경제의 체질 강화 및 성장잠재력을 회복하기 위한 토대 마련 -소득창출, 소비창출, 생산증가, 투자증가 등으로 이어지는 경제순환을 이뤄 국가 발전
	나쁜 일자리 증가	-시간제 일자리로 양적 증가만 강조하는 사이 청년 고용사정은 최악의 상태가 됨 -비정규직 대량 양산으로 저임금 근로자 비중이 높은 수준 -정부가 고용률 70%달성을 위해 시간제 일자리와 같은 질 낮은 일자리를 만들면서 청년들을 희생시키고 있음
일자리 감소	일자리 감소	-청년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만한 정책에도 불구하고 1년 만에 청년 일자리가 오히려 6만개 감소 -지역의 일자리 부족으로 청년층 수도권권으로 이탈 심화 -청년층 고용률 2004년 이후 지속적인 감소추세로 일자리를 얻지 못하는 청년층의 불행이 나라의 손실로 이어짐 -고용감소로 우리경제의 성장동력을 잃게 됨

성장 동력을 잃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축코딩의 결과로 도출된 청년층 일자리 창출에 대한 페러다임모형을 Fig. 3과 같이 도출하였다. 청년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을 축으로 하여 인과적 조건에 따라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 청년층 일자리로 사회·경제적 요인이 나타났고, 문제요인의 증가창출을 위한 정책을 계획 및 추진하고, 법 및 제도를 정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정책추진으로 좋은 일자리와 나쁜 일자리가 창출되고 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정책의 미진함, 창업의 어려움, 미스매치 문제 등의 영향으로 일자리 창출을 위한 환경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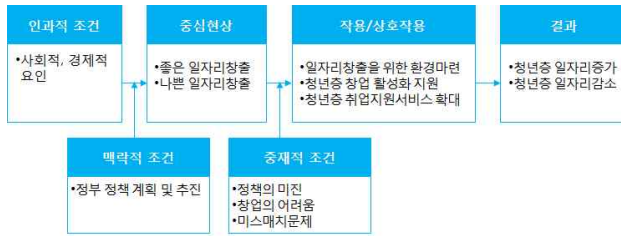


Fig. 3 Paradigm Model for the Youth Job Creation

원, 창업활성화 지원, 취업지원 서비스의 확대 등이 상호작용전략으로 나타났다. 결과로 청년층 일자리증가와 일자리감소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4. 청년층 일자리 창출문제 해결을 위한 개념 모델

앞서 살펴보았듯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청년층 일자리 창출문제 해결에 적용하기 위해 근거이론으로 신문기사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청년층의 일자리창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맥락적 조건은 정부의 정책 계획 및 추진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정책추진은 정책의 입안에서부터 실행, 평가 등의 순차적 과정으로 이루어지는 프로세스과정에 해당되는 요인이었고, 일자리창출을 위한 전략에 영향을 미치는 중재적 조건은 정책의 미진은 많은 사람들의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 지역의 시민참여, 창업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청년층 대상 창업 플랫폼 활용, 미스매치문제에서 정보의 효율적 제공 등의 IT 활용의 환경적 요소로 설명할 수 있다. 중심현상에 대처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으로 나타난 작용/상호작용전략으로 도출된 청년층 일자리창출을 위한 환경마련, 창업활성화 지원, 취업지원서비스의 확대 등의 전략은 대부분 공공정부의 역할에 해당하는 것으로 제도적 요소에 해당하는 요인들이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청년층 일자리 창출문제 해결에 대한 주요 요인별로 크게 3가지 단계로 구분하였다. 첫째는 프로세스과정으로 청년층 일자리 창출문제 해결을 위해 문제를 정의하고 계획, 실행, 평가의 4단계로 구성하였다. 둘째는 환경적 요소로 지역구성원의 특성 및 지역문화, IT기술의 기반 등 청년층 일자리 창출문제를 해결하는 외적인 환경요소로 구성하였다. 셋째는 청년층 일자리 창출문제와 관련된 법률 정책, 재정지원

등의 제도적 요소로 구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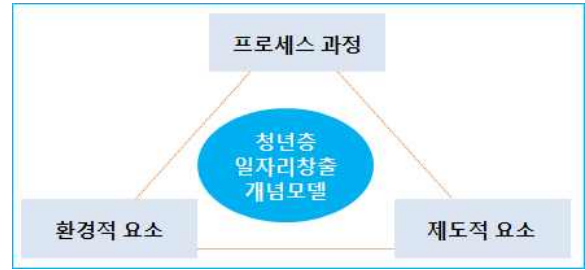


Fig. 4 The Conceptual Model of Youth Job Creation

4.1 청년층 일자리 창출문제 해결 프로세스 과정

청년층 일자리 창출문제 해결 프로세스 과정은 청년층 일자리 문제해결을 위한 목적을 정의하는 단계, 참여자의 범위 및 역할에 대해 계획하는 계획단계, 이해관계자의 참여방법 및 참여과정을 설명하는 실행단계, 참여자들의 가치창출 결과를 평가하는 단계로 나눌 수 있다. 개념모델의 이해를 돕기 위해 부산지역 청년층 일자리 창출문제를 가지고 설명하고자 한다.

1) 문제 및 목적의 정의 단계

문제 및 목적 정의는 지역사회에서 해결할 문제가 무엇인지 명확히 규명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지역사회는 저출산, 고령화 등의 인구문제, 일자리 부족의 실업문제, 교육문제, 환경문제 등 다양한 사회 문제들이 산재해 있다. 따라서 지역사회가 당면한 문제 중에서 어떤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하는 문제의 정의 및 목적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역에 산재해 있는 많은 사회문제들 중에서 우선순위가 가장 시급하다고 할 수 있는 청년층의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목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선정하는 것이다. 근거이론 분석에서 인과적 조건에 해당하는 사회적·경제적 요인은 청년층 일자리 창출의 원인으로 나타났다.

2) 계획단계

계획단계는 앞서 명확히 정의된 청년층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광범위한 계획이 추진되는 과정이다. 계획단계에서는 청년층 일자리 창출문제 해결을 위한 이해관계자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선정한다.

지역사회 내에 존재하는 다양한 생산체계를 Goldsmith et al.[15]은 사회변화의 소용돌이로 표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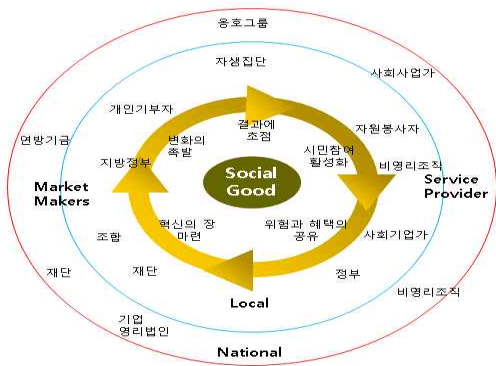


Fig. 5 Vortex of Social Change
출처: Goldsmith et. al.,[15]

가장 바깥쪽에 있는 원은 중앙정부, 재단, 대규모 기업, 전문가 단체, 이익집단, 중앙정부기금재단 등의 외부행위자 집단을 나타내고, 그 안에 있는 원은 지역행위자를 치칭하는 것으로 지역사회단체, 지역재단, 지역 자생집단 및 이익집단, 시민단체, 지역의 사회적 기업가 등이 포함된다. Goldsmith의 연구에서처럼 각 지역사회 내에는 다양한 주체들이 존재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청년층 일자리 창출문제 해결에서 어느 범위까지 참여시킬 것인지가 중요하다. 예를 들어 부산지역의 청년층 일자리 창출문제 해결을 위해서 참여자의 범위를 선정해보면 먼저 부산시 고용과 관련된 공공기관인 부산시청의 일자리 창출기획단, 부산 청년일자리센터, 부산시 산하 경제진흥원, 중소기업진흥원, 고용공단 등의 기관들이 해당 되며, 구인을 희망하는 기업, 노동계, 유관기관, 구직을 희망하는 청년 등의 시민들이 해당 된다. 또한 청년 일자리 창출에 관심과 아이디어를 가진 모든 부산시민과 국민 모두가 대상이 될 수 있다.

3) 실행단계

청년층 일자리 창출문제 해결을 위한 참여자의 범위가 결정되면 참여자의 역할을 결정한다. 부산지역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목적에 부합하는 참여자들은 참여자들마다 고유의 역할이 다르게 나타난다. 먼저 공공기관인 부산시청의 일자리 창출기획단의 경우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전반적인 행정적, 법적 업무를 관리하고, 부산 청년일자리센터는 청년층 구직자와 지역의 구인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의 눈높이를 맞추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지역의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의 역량과 가능성을 지역 청년들에

게 홍보하여 특화된 전문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수행한다. 노동계는 비정규직 및 열악한 근무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관련 기업들을 교육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대학, 연구소 등의 지역 내 교육기관은 취업과 관련된 전문적 기술 교육을 지원하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창업지원 교육 등을 실시한다. 고용지원센터에서는 구직을 원하는 청년과 구인을 원하는 기업을 연계 시켜줄 수 있다. 이 밖에도 청년들의 해외인턴 지원이나 일자리 매칭,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등을 육성하여 외교부, 고용노동부 등의 지원을 받을 수도 있다. 이로 인해 실업 중에 있는 청년들은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수 있고, 새로운 기업을 창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게 된다.

참여자들의 참여방법은 순서적인 절차에 의한 의사결정과정보다는 통합적이고 프로세스의 양단간에 직접적이고 동시적인 플랫폼을 활용하여 참여하는 것이 중요한 요인이 된다. 예를 들면 부산시에서는 청년 일자리 창출에 대한 지역시민의 아이디어를 모으기 위해 웹사이트 및 부산 청년일자리센터 온라인 카페, 우편 및 방문접수, 이메일 등의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일자리 창출 시민·대학생 아이디어 공모”를 실시하였다. 또한 부산시는 노동부고용안전정보망(Worknet), career제공 채용정보,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컨택센터 등을 연계하여 일자리 관련 취업정보를 필요로 하는 지역사회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있었다. 또한 부산시청 웹 사이트, 카페, 트위터, 페이스북 등의 SNS, 정기포럼, 토론회, 심포지엄 등을 활용하여 참여자들이 편리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온라인, 오프라인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고 있었다.

4) 평가단계

평가는 참여자들이 어떠한 가치를 창출하였는가를 평가하는 것이다. 참여자들의 가치창출은 참여자마다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근거이론 분석을 토대로, 실업 중인 청년이 일자리 증가의 결과로 일자리를 찾았을 때 청년의 가치는 실업에서 탈피하여 일자리를 갖게 되는 것으로 가치창출을 하게 되고, 공공기관은 청년의 취업으로 지역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다는 가치를 창출하게 된다. 또한 온라인으로 청년 일자리 창출에 아이디어를 제공한 부산시민은 아이디어 공모 당선으로 인해 포인트 및 문화상품권 등의 직접적인 인센티브를 받아 가치를 창출할 수 있고 이와 더불어 자신의 아이디어가 채택되었다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간접적인 경험의 혜택이라는 가치창출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청년층의 일자리 창출문제 해결에 따라 지역의 일자리가 증가하게 되고 이를 통해 지역시민이 행복해지고 또한 안정된 직장을 가진 청년층의 결혼과 출산이 증가하고 성장 잠재력을 회복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라는 행정집행의 성과를 올리는 가치를 창출하게 된다.

4.2 환경적 요소

청년층 일자리 창출문제 해결을 위한 환경적 요소로는 문제해결을 효과적·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IT기술, 지역구성원의 특성을 반영한 지역 문화 등이 여기에 속한다.

청년층 일자리 창출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참여자 간의 협력을 위한 네트워크가 중요하다. Putnam[16]의 연구에서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는 네트워크 등 협력적 행위를 촉진하기 위해 사회적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사회적 연계망을 지칭하는 사회적 자본이 충분히 축적된 공동체에서 더 쉽게 달성된다고 한 것처럼 참여할 수 있는 네트워크 기반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지역사회문제에서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력은 그 지역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반영하여 지역사회문제를 가장 효과적·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네트워크를 통한 참여와 협력은 그동안 전통적인 수직적 방식에서 지시하고 명령하는 일방적 의사소통 형태를 대화와 토론을 통한 쌍방향적 참여와 협력으로 사회적 혁신을 가져다주었다. 특히 미국 오바마 대선 이후 전 세계적으로 급속한 발전을 이룬 트위터, 페이스북과 같은 SNS는 사회문제 해결에서 주민들의 참여 및 협력을 향상시키는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 이와 같이 IT기술을 기반으로 지역사회문제에 대해 지역의 주민, 전문가, 지역사회의 산·학·연 등이 함께 논의하고 소통하여 지역 모두가 원하는 방법을 선택하여 함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청년층 일자리 창출문제와 관련된 일자리 창출기획단, 부산 청년일자리센터, 부산시 산하 경제진흥원, 중소기업진흥원, 고용공단 등의 공공 및 민간기관과 구인을 희망하는 기업, 노동계, 유관기관, 구직을 희망하는 청년, 청년 일자리 창출에 관심과 아이디어를 가진 모든 부산시민과 전 국민들이 함께 소통하고 협력하기 위해서는 IT기술을 활용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 전 국민이 청년층 일자리 창출을 사회문제로 인식하고 이에 대한 아이디어를 홈페이지나 시민제안 등에 제안함으로써 새롭고 가치 있는 아이디어를 발굴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부산지역에서 청년층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시민들의 제안을 받기 위하여 IT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인터넷을 활용하여 ‘일자리 창출 시민·대학생 아이디어 공모’를 실시하여 일자리 창출에 대한 아이디어와 정책제안을 모집하였고, 부산 경제진흥원 홈페이지(www.bepa.kr) 또는 부산 청년일자리센터 온라인 카페(http://cafe.daum.net/yescentre) 등을 활용하기도 하였다.

4.3 제도적 요소

제도적 요소는 법률,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의 공공정부의 역할이 여기에 속한다. 특히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관련된 법적 기반을 지역여건에 맞게 개정 및 제정하는 것과 이를 위한 재정적 지원을 뒷받침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국가의 법제도 정비, 지자체 간 협력을 규율하는 단일법 제정이나 지역 간 협력을 위한 전담기관 도입 등과 함께 기존 차지단체의 고유기능과 차별화 되는 기능을 외부효과가 존재하는 광역기능을 중심으로 명확하게 정의할 필요가 있다[17].

그 동안 행정 및 법적, 제도적 지원을 위한 정책들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각 부처 및 부서별 산발적 지원으로 인해 행정력의 낭비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행정부서간의 칸막이 현상이 심화되어 왔다. 이러한 비효율적인 행태는 지역사회 문제해결에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효율적인 법적, 행정 및 제도적 지원이 되어야 한다.

앞서 근거이론 분석결과에서도 나타났듯이 일자리 창출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 계획 및 추진, 법 및 제도의 정비가 추진되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부산지역의 청년층 일자리 창출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에서 일자리 창출기획단을 조직하여 일자리 업무 전반을 담당하도록 조직개편을 하였고, 경제진흥원에서는 ‘부산 청년일자리센터’를 설치하였다. 중소기업의 청년인턴 채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인건비 등의 재정을 공공정부에서 지원하였고, 교육 부족으로 인한 취업 낙오자를 위한 취업교육지원 및 일자리 통계를 구축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제도적 지원을 하였다.

5. 결 론

글로벌 경기침체 및 사회전반적인 분야에서 사회문제들에 대한 위기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청년층의 일자리문제는 사회적 고립과 소외 등의 문제로 삶의 질 악화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취업에 실패한 경험이 상실감으로 이어져 장기적으로 국가와 지역의 경쟁력 약화문제로 확대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청년층의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사회적 이슈를 알아보고 이를 토대로 청년층 일자리 창출 개념모형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최근 1년간의 청년층 일자리 창출문제와 관련된 신문기사를 수집하여 개방코딩, 축코딩, 선택코딩의 3단계 근거이론으로 분석하였다. 청년층 일자리 창출 패러다임 모형 분석결과는 사회적·경제적 요인의 증가로 인해 정부에서 청년층 일자리 창출 관련 정책을 계획하고 추진하여 청년층 일자리가 새로 창출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러한 과정에서 정책의 미진함과 창업을 희망하는 사람이 겪게 되는 창업의 어려움, 구인자와 구직자의 미스매치에서 오는 문제 등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작용/상호작용전략으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국가적 환경을 마련하는 방안과 창업을 희망하는 창업자에게 창업활성화 지원, 그리고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층을 위한 취업지원 서비스를 확대하는 방안 등을 도출하였다. 이러한 결과로써 청년층의 일자리가 증가하여 개인의 행복 증가 및 국가발전에 기여하게 되고 일자리 감소로 인해 청년층의 불행이 나라의 손실로 이어져 우리경제의 성장 동력을 잃게 된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청년층 일자리 창출 패러다임 모형 분석결과를 토대로 청년층 일자리 창출문제 해결 프로세스 과정, 환경적 요소, 제도적 요소의 3가지 요소에 따른 청년층 일자리 창출문제 해결을 위한 개념모형을 제시하였다. 개념모형의 핵심은 청년층의 일자리 창출문제에 따른 문제 및 목적 정의, 계획, 실행, 평가의 프로세스과정 요소, IT기술의 활용 및 지역 특성, 문화 등의 환경적 요소, 법적·행정 및 제도적 요소를 부산지역 청년층 일자리 창출문제를 가지고 예를 들어 설명하였다.

본 연구는 학문적으로 청년층 일자리 창출문제를 근거이론으로 분석하여 이 분야의 질적 연구의 확대에 기여하였고, 실무적으로는 청년층의 일자리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청년층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사회적 이슈를 분석하는데 신문기사만을 한정하여 일반화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 있으며, Co-creation을 위한 일자리창출 문제에 접근한 선구적 연구이기에 이론을 통한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직접적으로 보여주지는 못하였다는 점이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청년층 일자리창출 문제에 대한 당사자인 청년층의 인식에 대한 실증연구와 사회문제 해결 사례를 통한 지역사회문제 해결 모델을 제시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References

- [1] K. S. Lee, K. N. Na and K. N. Lee, "A Study to Expand International Job Opportunities in the ICT Sector," Korea Information Society Development Institute, Research Reports, Vol. 13, pp. 1-113, 2013.
- [2] S. K. Lee, "Social Exclusion of Young People in Korea Social: Focused on the Youth Unemployment Problems," Journal of The Korean Social History Association, Vol. 20, No. 2, pp. 569-581, 2009.
- [3] JoongAng Daily Newspaper, "2015 Top Ten Economy Management Trend Forecasting," JoongAng Media Preview Cover Story, 2015.01.05.
- [4] N. R. Kim, S. G. Hong and J. W. Kim, "Operational Strategy of Co-creation Platform: Comparative Analysis of Samsung Apps and Apple Appstore," Journal of The Korea Industrial Information Systems Research, Vol. 19, No. 1, pp. 99-109, 2014.
- [5] S. G. Hong, S. E. Han, H. M. Lee and J. W. Kim, "The Conceptual Model for a Co-creation Platform," Journal of The Korea Industrial Information Systems Research, Vol. 19, No. 3, pp. 127-136, 2012.
- [6] S. G. Hong, H. J. Kim and H. R. Cho, "The Conceptual Model of a SNS Platform for Co-creation," Journal of The Korea Industrial Information Systems Research, Vol. 17, No. 3, pp. 95-104, 2012.
- [7]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Social

Research Center, "A Study on the Expert Survey on Youth Jobs Creation Through the Government 3.0," Policy Issues Expert Research Series, 13-04, 2013.

- [8] Korean Statistical Information Service, 2014.
- [9] K. W. Roh, "Improving the Job-Creating Policy of Daegu City Government in Korea," Graduate School of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Master's Thesis, 2006.
- [10] G. Schmid, "Youth Unemployment in Korea: from a German and Transitional Labour Market Point of View," No. 63. IZA Policy Paper, 2013.
- [11] J. Lim, "Recent Youth Employment Status and Future Challenges," Financial Focus, Vol. 23, No. 2, pp. 10-11, 2014.
- [12] H. C. Park and J. H. Lee, "A Study on the Analysis of Regional Disparity and Competitiveness on Youth Employment,"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4, No. 7, pp. 3253-3262, 2013.
- [13] Y. N. Song, "A Study on the Value Estimates of 'Good Jobs' Characteristics for Alleviating Young People's Mismatch," Journal of The Korean Economic and Business Association, Vol. 30, No. 4, pp. 69-88, 2012.
- [14] A. Strauss and J. Corbin, "Basics of Qualitative Research: Techniques and Procedures for Developing Grounded Theory," Second Edition, London: Sage Publication, 1998.
- [15] S. Goldsmith, G. Georges and T. G. Burke, "The Power of Social Innovation: How Civic Entrepreneurs Ignite Community Networks for Good," San Francisco: Jossey-Bass Publishers, 2010.
- [16] R. D. Putnam, "Making Democracy Work: Civic Traditions in Modern Italy," N. J.: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4.
- [17] J. Koo, S. B. Kim and J. H. Ki, "Analysis of Regional Collaborations based on the Collaborative Governance Model: A Case of the Daejeon Metropolitan Area Collaboration Projects," 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for Local Government Studies, Vol. 17, No. 3, pp. 23-46, 2013.



홍 순 구 (Soon-Goo Hong)

- 영남대학교 경영학과 경영학학사
- Univ. of Nebraska-Lincoln 경영학석사
- Univ. of Nebraska-Lincoln 경영학박사
- 동아대학교 경영대학 경영정보학과 교수
- 관심분야 : 중소기업의 정보화, 웹 접근성, 정보시스템 평가, RFID, Co-creation



이 현 미 (Hyun-Mi Lee)

- 신라대학교 사회복지학 학사
- 동아대학교 경영정보학 석사
- 동아대학교 경영정확 박사
- 관심분야: 웹 접근성, 정보시스템, Co-creation



한 세 역 (Se-Eok Han)

- 성균관대학교 행정학 학사
- 서울대학교 행정학 석사
- 서울대학교 행정학 박사
- 동아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관심분야: 정보/지식관리, 조직론, 정보화정책



김 종 원 (Jong-Weon Kim)

- 인하대학교 경영학과 경영학사
- Univ. of Nebraska-Lincoln, 경영학석사
- Univ. of Nebraska-Lincoln, 경영학박사
- 동의대학교 상경대학 경영정보학과 교수
- 관심분야: Co-creation, CSR, CSV, SCM, ERP, BSC, 서비스 품질, 시스템 품질